

2013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임옥상 초대展

Lim Ok sang

The 15th Private Exhibition of Nowon Culture & Arts Center 2013

임옥상 초대展 Lim Ok sang

The 15th Private Exhibition of Nowon Culture & Arts Center 2013

나는 동사 (verb) 다

나는 동사(動詞)다. 형용사, 부사가 아니다.
예술을 수식어 짬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술을 사회를 장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곧 권력과 자본의 치장임을 자임하고 나선다.
또, 혹자는 스스로 명사(名詞)로 착각한다. 자신이 주여란다.
중심이고, 주인이고, 개념으로 불멸이란다. 그러나 불멸은 곧 죽음일 뿐이다.
사람, 평화, 윤리, 도덕, 진리, 신뢰, 행복, 연민, 봉사·
이들 아무리 훌륭한 개념이라도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한낱 관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것들은 동사로 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 싸우고 윤리 도덕을 지키고 진리를 새기고
연민을 가지고 봉사를 하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
이런 가장 역동적인 동사의 역할을 예술이 맡아야 한다.
예술가는 예술 행동의 주체다. 모든 추상과 관념,
보편타당에 예술심장을 담아 동사로 변형시켜야 한다.
따라서 예술가는 삶의 현장을 떠날 수 없다.
현장을 찾고 고수하고 현장에 살아야 한다.
끝없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한바람 임 옥 상

2013.11.6 Wed ~ 11.20 Wed

Opening : 2013. 11.6 Wed 5:00 pm

주최 | 노원구서비스공단 주관 | 노원문화예술회관 후원 | 노원구청

노원문화예술회관 4층 노원아트갤러리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364 3 (우수동길 181) T. 02 951 3355 www.nowonart.kr

지금 혹은 당대, 임옥상을 위하여

시인 | 김정환

세상이 색과 모양의 함으로 한없이 깊어지는 평면으로 보일 때, 그것이 말과 글의 언어 구성체보다 더 편한 언어구성체로 느껴질 때, 자신의 예술 행위를 통해 그것을 말과 글의 언어 구성체 너머 언어구성체로 재창조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화가적인 인간은 화가로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처음부터 의식적인 것도 아니고 뒤늦게 의식적일 필요도 없으며, 다만 이러한 여러 단계 혹은 여러 겹 운명 경험은 사회 경험보다 말 그대로 더 근본적이고 더 최종적이라는 점이다.

훌륭한 예술가란 사회의식이 새로운 예술언어를 만드는 것보다 예술 언어가 새로운 사회의식을 만드는 면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왜냐면 특히 음악과 미술의 고전 언어는 역사발전의 독특한 산물이고, 예술 언어를 억압하는 역사발전이란 어불성설이다. 사실 예술 언어를 억압하는 사회의식이란 것도 없다. 혹시 있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시사적 관점에 지나지 않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초기작을 철부지 시절 것으로 치부하는 화가가 위대해지기 힘들다는 말에 수긍할 수도 있고, 화가의 꾸준한 노력에 격려를 보낼 수도 있고, 비약적인 발전에 경악의 찬사를 보낼 수도 있다.

임옥상은 사회의식과 사회활동이 폭넓은 미술가로 정평이 나 있지만, 내가 보기에 더 중요한 점은, 불안한 근대 혹은 근대라는 불안을 단칼에 장악해 들어가는(여기서 근대를 ‘모던’ 이란 말로 바꾸어도 되겠다.) 그의 미학 언어가 초기 작 이래 그 술한 소재 및 규모의 변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자신의 ‘그때그때 사회적 사태’에 대한 사회적, 예술 ‘포기’ 선언을 포함한 열혈 발언과 상관없이, (그는 미술에서 금과옥조로 내거는 개성이니 독창성이니 상상력이니 하는 말조차 거부하려 든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임옥상이야말로 개성적이고 독창적이며 상상력이 남다른 화가가 아니겠는가. 미술평론가 김윤수.)

그러니까 의식, 무의식으로, 별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꾸준한 노력 속에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여러 차례 누렸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민중미술사는 물론 한국현대미술가 전체를 역동시키는 가장 역동적인 한 축이다. 액션페인팅 기법으로 한국전통의 탈 형용을, 혹은 탈 형용으로 액션페인팅 기법을 흡수해버리는 자유의 과감, 여성 누드를 야수와 너머로 밀어붙이는 정신의 육박, 식민지 극복의 고추의 붉음에서도 형식미를 놓치지 않는 예술의 집요, 그리고 자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조화 혹은 분열의, 관계 혹은 혼용의, 심화 및 확대, 공공의 안팎과 기타, 현현과 절규, 보리밭, 나무, 종이 등이 서로 살을 섞으면서 서로를 살 찌우고 공공미술 속으로, 바야흐로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화’ 하는 와중 오히려 역사와 자연이 흙으로 쇠로, 물과 불로 원소화하는 동시에 심화한 원소들의 변증법으로 역사와 자연을, 인간-역사의 자연적 질과 자연의 인간-역사적 질을 높여 이제까지의 그 파란만장하고 유장한, 참으로 임옥상적인 임옥상 미술 ‘생애’를 겪으며 또한 더 깊고 더 역동적으로 발전할 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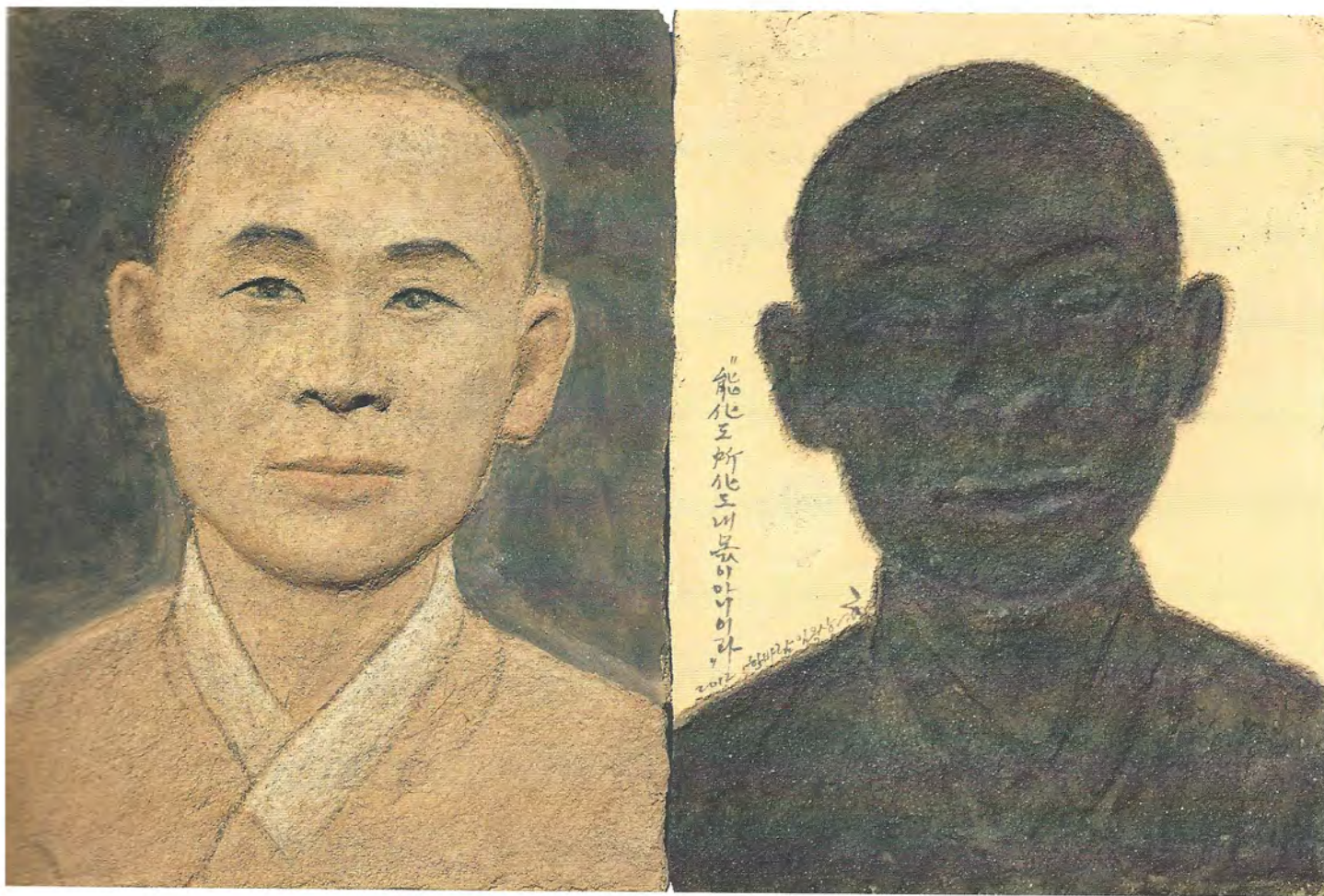
시의 숲 500×400×250cm | 한지에 황토물







당신 누구요 64×45cm | 판넬에 흙, 먹, 아크릴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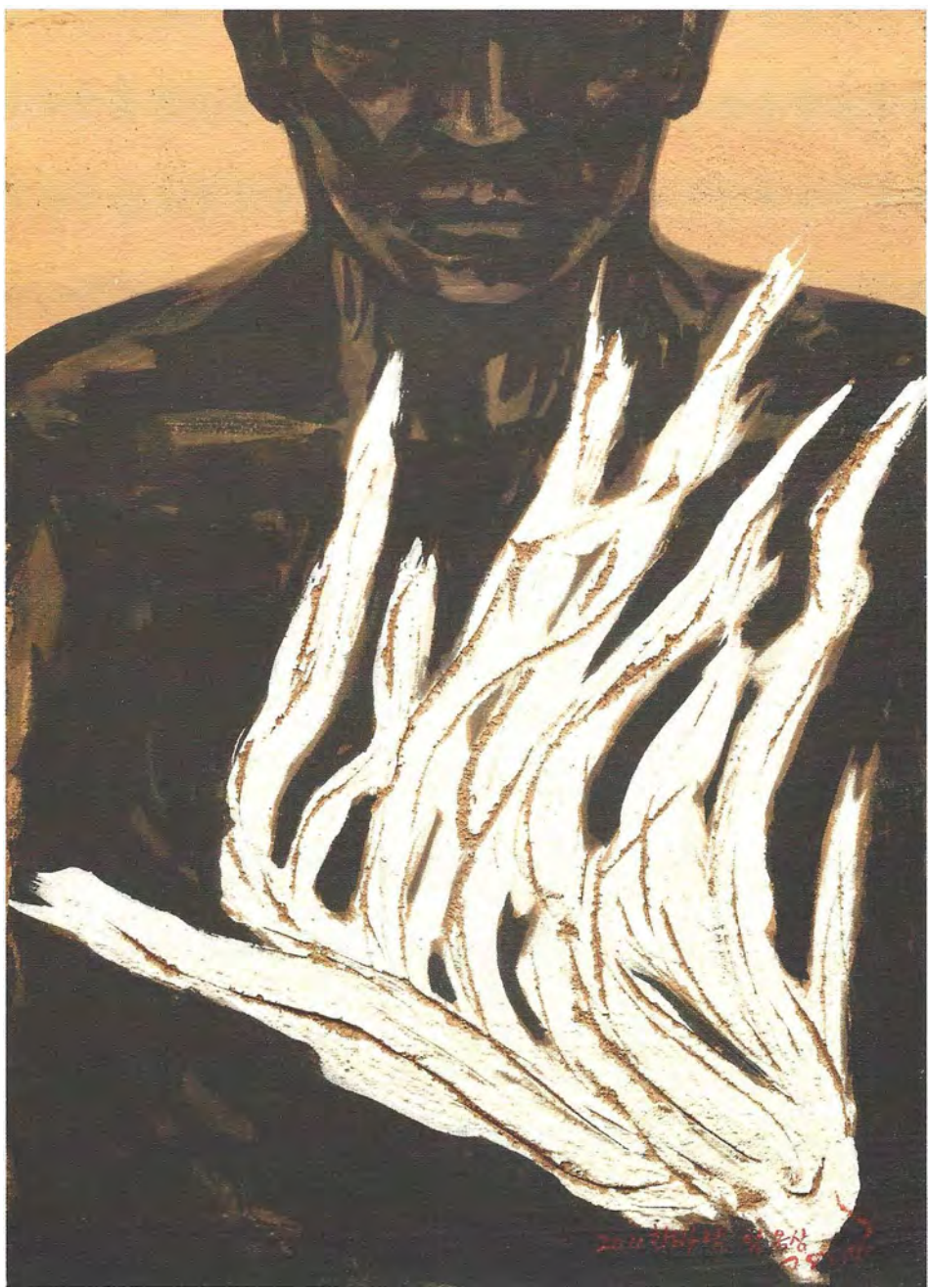


능화(能化)도 소화(所化)도 내 몫이 아니라 24.5×33.5 / 49×33.5cm | 판넬에 흙, 먹,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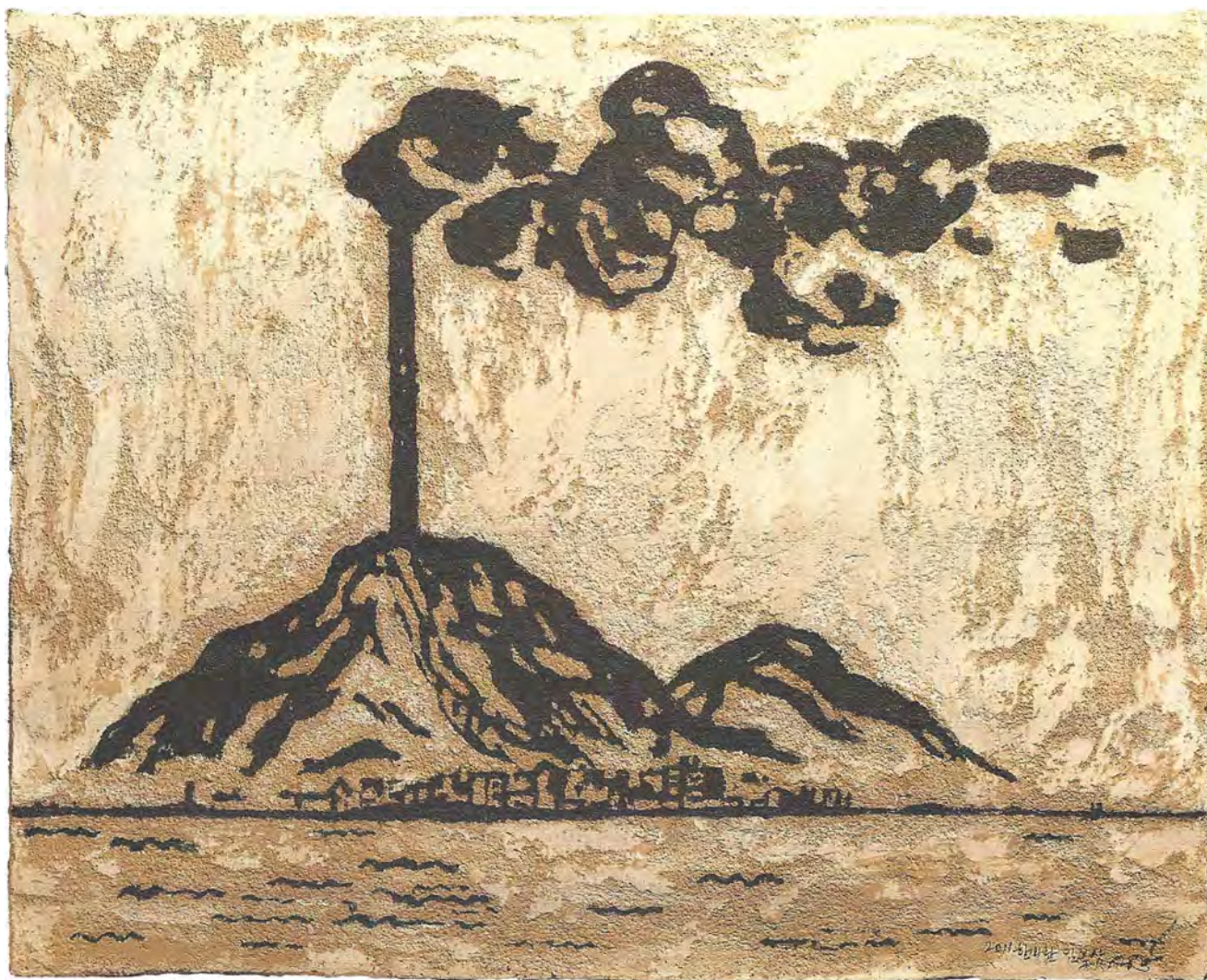


돌아라 45.5×45.5cm | 판넬에 흙, 아크릴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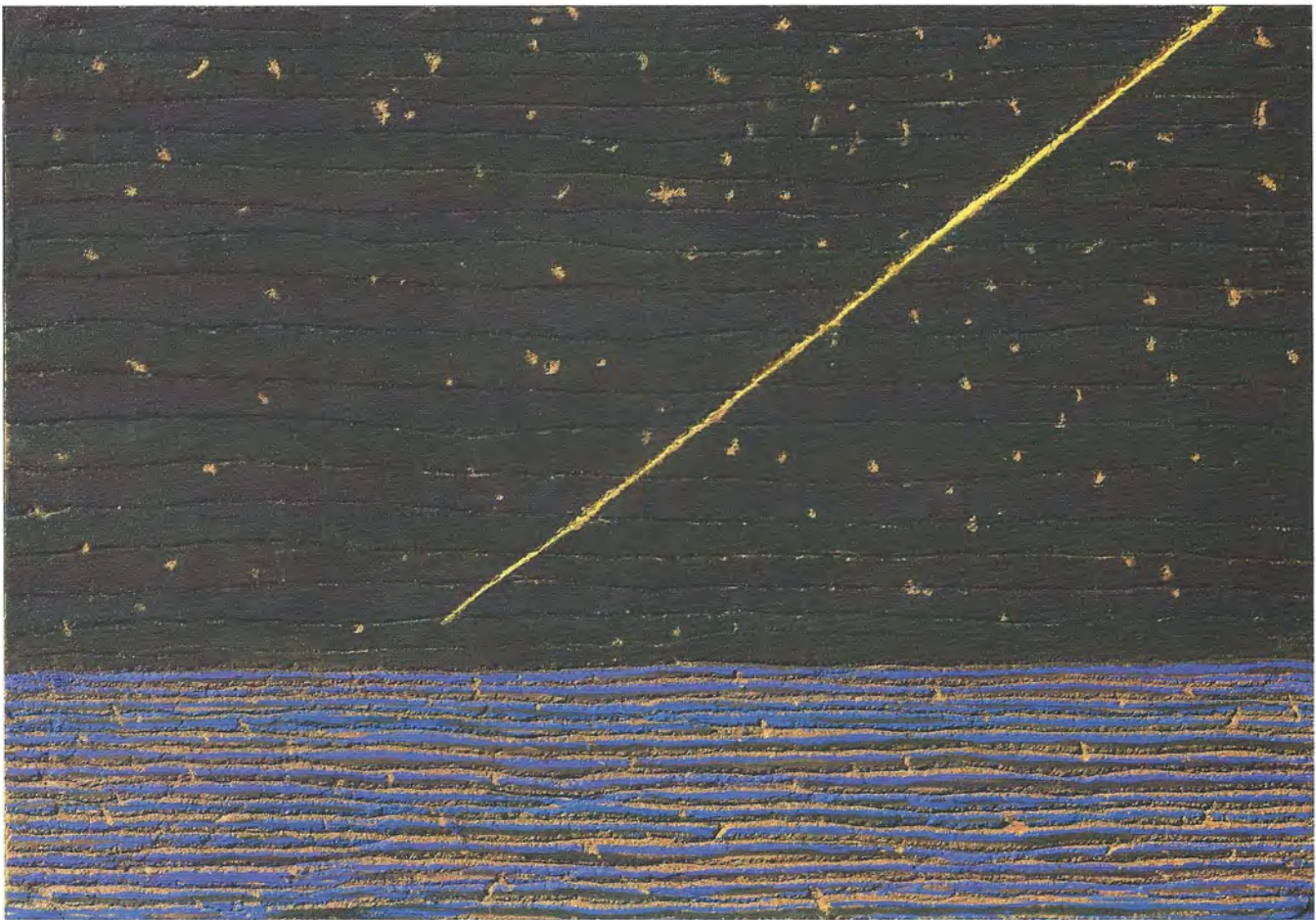


하얀 불꽃 36.5×51.5cm | 판넬에 흙, 먹,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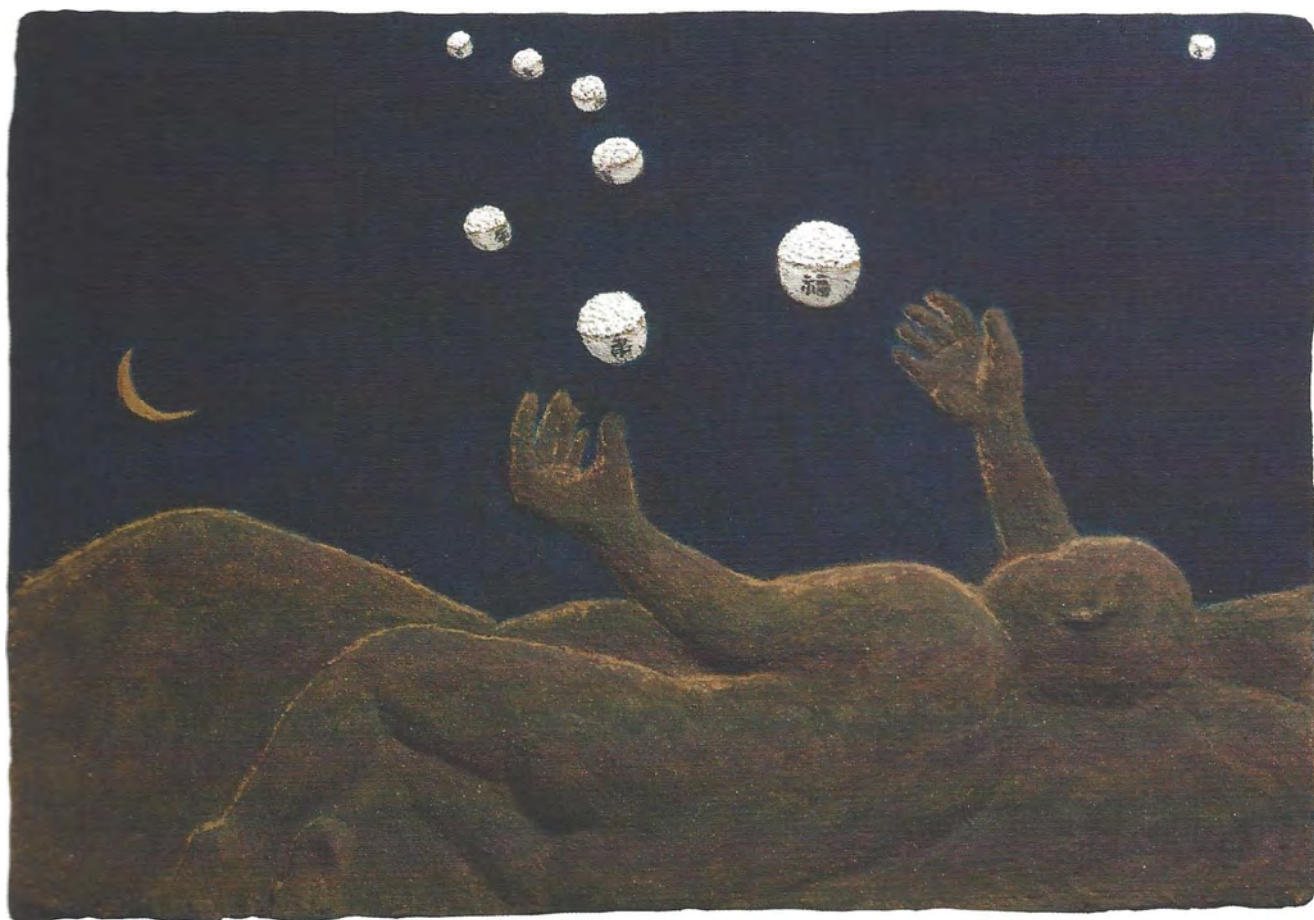








별뿔별 59.5×42cm | 판넬에 흙, 먹, 아크릴 채색



별 밥 52×36.5cm | 판넬에 흙, 먹, 아크릴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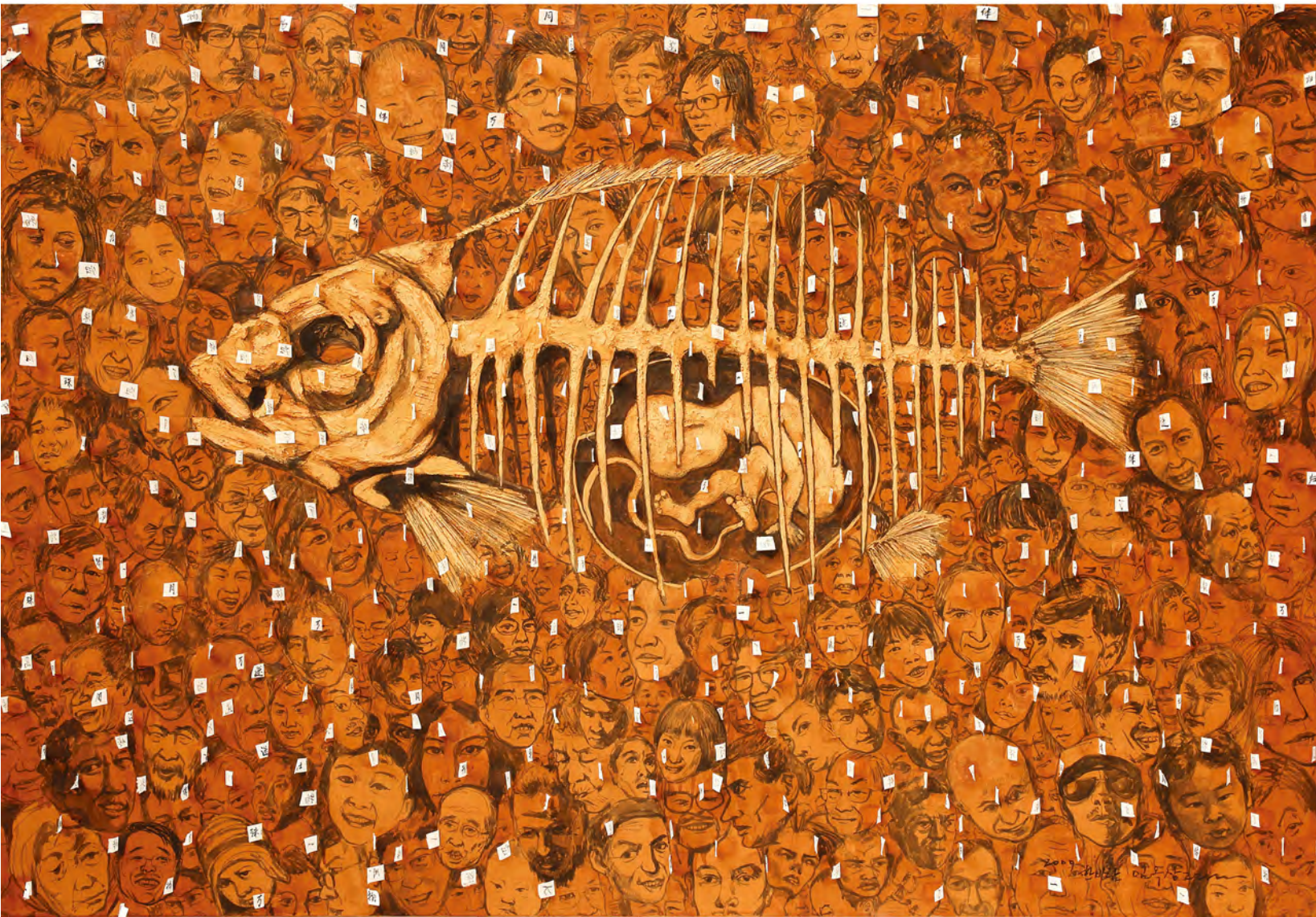




가재| 그 곳으로 41.5×32.5cm | 판넬에 흙, 먹, 아크릴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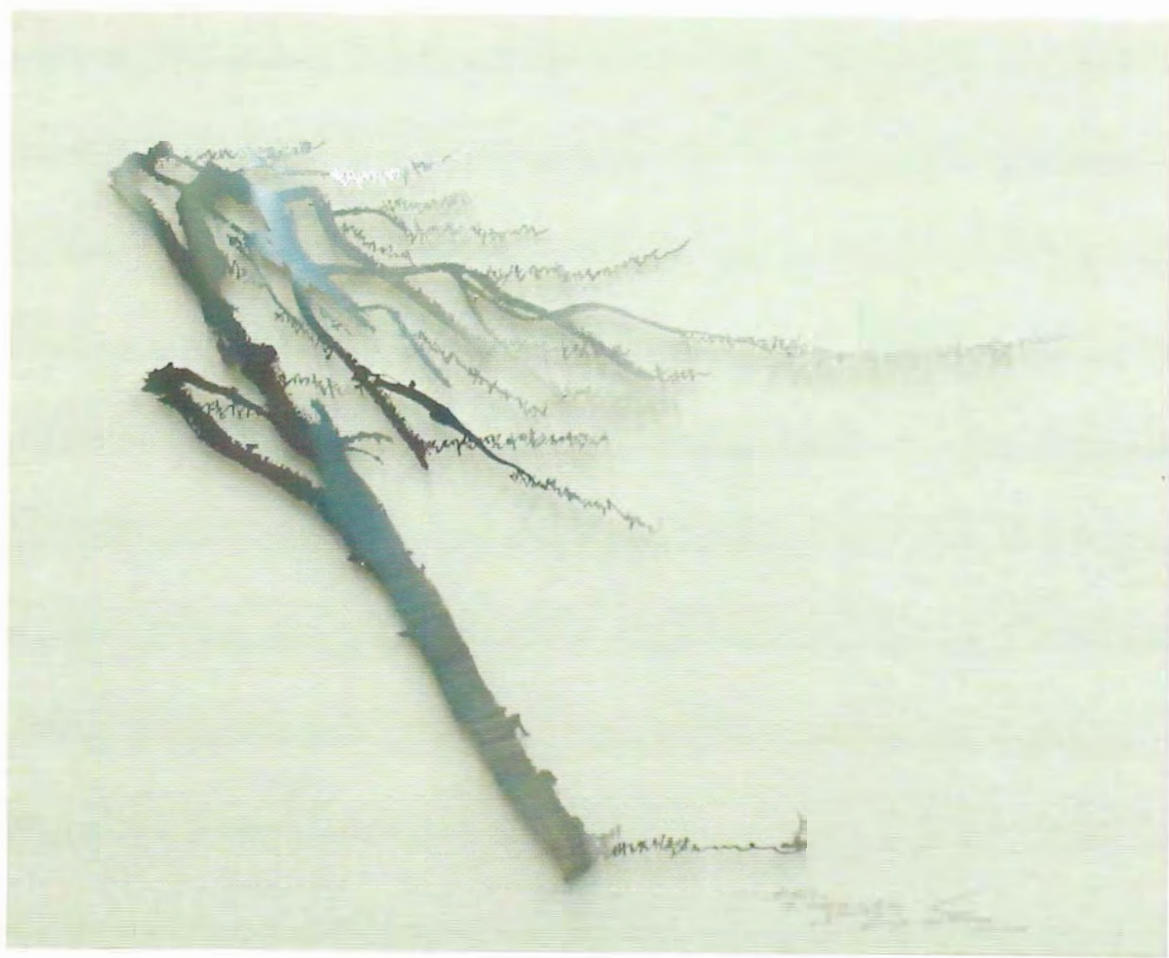


비 오는 자의 거리 43×30.5cm | 판넬에 흙, 먹, 수채, 아크릴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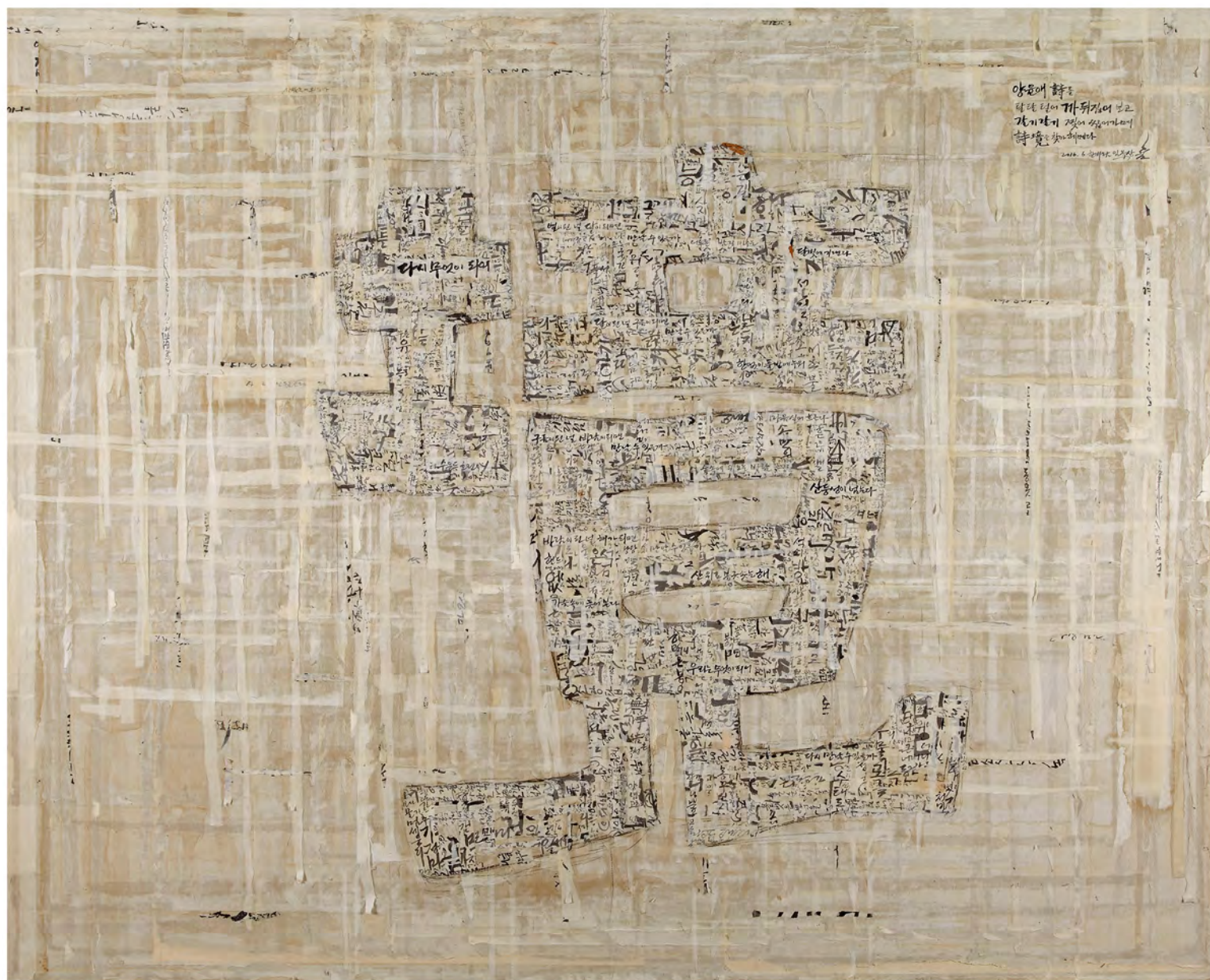
모두 하나가 되어 162×113cm | 황토 베이스에 먹수채, 아크릴채색





바람이 시가되어_2 55×45cm | 스테인레스 스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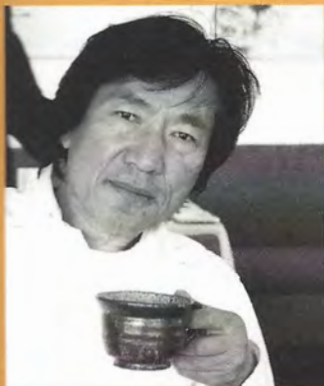




전시장 사람들 180X65X40cm | 스테인레스 스틸



웅덩이 341×137cm | 한지예 흙



임 옥 상 (林玉相)

Lim, Ok Sang

· 임옥상미술연구소 소장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 졸업

개 인 전

- 1981 제 1회 (미술회관)
- 1984 제 2회 (서울 미술관)
- 1988 제 3회 '아프리카 현대사' (가나 화랑)
- 1990 제 4회 '우리시대 풍경' (온다라 미술관)
- 1991 제 5회 '991 임옥상 회화' (호암갤러리)
- 1995 제 6회 '일어서는 땅' (가나 화랑)
'일어서는 땅' (가나-보브르 화랑 초대전, 파리, 프랑스)
- 1997 제 7회 '역사의 징검다리' (가나 화랑)
- 1997 제 8회 '저항의 정신' (얼터너티브 뮤지엄, 뉴욕, 미국)
- 2000 제 9회 'D.M.Z Oksanglim' (Orchard Gallery, 영국 북아일랜드)
- 2000 제 10회 '철의 시대 · 휴의 소리' (가나아트갤러리)
- 2001 제 11회 '물과 불의 노래' (부산 코리아아트갤러리)
- 2002 제 12회 '철기시대 이후를 생각하다' (인사아트갤러리)
- 2003 제 13회 '한바람 임옥상의 가을이야기' (갤러리편도나무)
- 2011 제 14회 Master Pieces - '물, 불, 철, 살, 휴' (가나아트센터)

단 체 전

- 72~82 '십이월'
- 77~82 '제 3그룹'
- 80~90 '현실과 발언'
- 83~84 '문제 작가 작품' (서울 미술관)
- 1988 '민중아트' (뉴욕 아티스트 스페이스)
밀라노 트리엔날레 (이태리)
- 1989 FORUM (독일 함부르크)
- 1991 반 아파르헤이트 (예술의 전당)
- 1992 '십이월展 그 후 십년' 72
- 92~93 '실크로드 기행' (동아 갤러리)
- 1993 퀸즈랜드 트리엔날레 (오스트레일리아 퀸즈랜드)
'코리아 통일 미술' (동경)
'토탈미술대상' (토탈 미술관)
대전 EXPO 재생 조형
- 1994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 '새야, 새야 파랑새야' (예술의 전당)
'민중미술 15년' (국립 현대미술관)
'한국현대미술 40년의 얼굴' (호암 갤러리)
'서울 풍경의 변천' (예술의 전당)
- 1995 '한국의 색과 빛' (호암 갤러리)
한국 현대미술 (중국 북경)
한국 현대미술 (국립 현대미술관)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호랑이 꼬리' (베니스)
해방 50주년 기념 '민족미술' (예술의 전당)
'정보와 현실' (영국 에딘버러 후르트마크 전시장)
제1회 광주비엔날레 국제 미술전 (광주)
- 1996 판화 미술제 (예술의 전당)
'해방 50년' (예술의 전당)
노화랑 개관초대 '미술로 본 역사인물 20인' (노화랑)
- 1997 한국 현대미술 (중국 심양 노신미술관)
제2회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통일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
'조국의 산하' (서울 시립미술관)
- 1998 '불온한 상상력' (21세기화랑)
'김복진 미술제' (충북문화원)
가나문화센터 개관 기념 (가나화랑)
부산 국제 현대미술제 'PICAF'
세계인권위원회 50주년기념 인권전시회 (예술의 전당)

- 1999 '동강별곡' (가나화랑)
동북아와 제3세계 미술(서울시립미술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옥사 설치 '큰 감옥, 작은 감옥'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 2000 '헤어리 아트 벨리 퍼포먼스 '가이아'
한국 베트남 평화 기금 마련 경매
'민족상생21' 2, 4x100m대형벽화 제작, 설치 (광화문)
'일어서는 땅 2000 역사와 의식' (서울대학교 박물관 기획)
달리는 도시철도 문화예술관 '역사야 놀자' (지하철 7호선 설치미술)
광화문 갤러리 개관 기념 '서울의 화두는 평양' (광화문갤러리)
- 2001 1980년대 리얼리즘과 그 시대 (가나아트센터)
한국미술 2001 '회화의 복권' (국립현대미술관)
'가족' (서울시립미술관)
오월정신 '행방불명' (광주시립미술관)
김윤수 선생 정년퇴임 기념 (학교재)
사물산 윤필암 (학교재)
한국 국제 전범 재판소 (뉴욕 맨하탄 유엔 처치 센터, 미국)
가나 Art & Craft Fair (인사아트센터)
역사와 의식 '독도' (서울대학교 박물관)
'목간청개구리 애니메이션' (갤러리 제주아트/서호미술관)
화랑미술제 (예술의 전당)
'부여인 미술' (덕원미술관)
서울대학교 역사와 의식 '역사와 구토 독도' (서울대학교)
'행방불명' (광주시립미술관)
- 2002 '물' (시립미술관)
- 2003 수재민돌기 특별전 (갤러리 현대)
조국산하 (세종문화회관)
평창동사람들(가나화랑)
남산 벤치 '균형과 평등 그리고 휴식' (남산)
청와대 녹지원 '벤치, 날개' (청와대)
- 2004 '아들리에 사람들' (가나화랑)
'현대미술의 시선' (세종문화회관)
STEEL of STEEL (포스코 미술관)
6.15 공동성명 발표 4돌 기념 통일미술전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금지된 상상력'
평화선언 2004-세계 100인 미술가 (국립현대미술관)
베이징 비엔날레 (중국 베이징)
- 2005 'D.M.Z' (파주 헤어리)
- 2007 '매항리의 시간' 국도 1호선 (경기 도립 미술관)
- 2008 '허허금강' 가나아트25주년展 (가나아트 센터)
'델타' (경북 대구)
- 2009 바다미술제 (부산 비엔날레)
- 2010 베이징 비엔날레 (중국 베이징)
'생명과 평화' (서울 미술관)
현실과 발언 30년 (인사아트센터)
신호탄 (기무사 국립현대미술관)
- 2011 '추상하라' (국립덕수궁미술관)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이준기념관 - 이준 연대기 및 초상 조각 (대검찰청)
한 뼉 미술관
'5월, 기억과 한생' (광주 ZOO 갤러리)
- 2012 태화강설치미술제 (울산)
'여기 사람이 있다.' (대전 시립미술관)
불교미술특별기획전 (공아트스페이스)
'모성' (광주시립미술관)

Lim Ok sang

- 2013 30주년 가나아트갤러리 기념전 (가나아트갤러리)
'너는 나에게' 시화전 (가나 컨템포러리)
해인아트프로젝트 '心' (경북 해인사)
아트 광주 페어

환경조형 및 공공미술

- 1996 '광화문의 역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 1997 '생명의 일곱기둥' (충북 입장 생산 기술 연구원)
- 1998 '새는 물을 좋아한다' (진주박물관)
'다함께 부르는 노래' (담배인삼공사)
'누가 이들에게, 대지의 어머니' (정신대 역사관)
- 1999 '달 따라 가자' (증산동 우방 아파트)
- 2000 '세월' (전남 영암 구림마을)
매항리 상징 '자유의 신 in KOREA'
'역사야 놀자' (5호선 광화문역)
- 2001 장육진 선생 기념조형물 (장육진 선생님 기념관)
'엘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흙의 소리'(수원월드컵 경기장)
- 2002 한강에서 보물찾기 서울시/환경운동연합 (여의도교수부지)
당신도 예술가 (인사동 차 없는 거리) (1999~2002)
- 2003 '숨아오르는 산' (광주지하철 농성역)
난타맨 (정동 난타극장)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행사 '달 항아리에 바치는 노래' (여주)
6월 난장 '대형풍경달기 등' (서울 시청 앞 광장)
'노동을 위하여' (원진녹색병원 엘리베이터 탑)
국민은행후원 '꿈꾸는 학교'
학교프로젝트 1차 영일초등학교 놀이터 벽화
학교프로젝트 2차 분원초등학교 도자 쉼터
학교프로젝트 3차 연남초등학교 도서관
학교프로젝트 4차 천마초등학교 운동장 벽화
학교프로젝트 5차 백제초등학교 식당벽화
- 2004 '꿈꾸는 책 뿔' (학교교육환경개선 1차 서화초등학교)
'굿뜨레' (부여홍보부스)
'노동을 위하여' (녹색병원)
- 2005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예술사랑 문화 나눔'
책 테마파크 '세상의 배꼽' (성남시 분당)
전태일 거리 (청계천)
어린이 놀이터 '까치야 놀자' (시흥시)
천사 유치원 놀이 램프 (안양)
- 2006 어린이 무장에 놀이터 '상상 거인의 나라' (서울 숲)
환경위기사계 (롯데백화점 본점)
- 2007 경관창 '구름 속을 거닐다' (강원 화천)
'빛의 나라 백제' (부여 백제문화관)
STOP CO2 (서울시청 광장)
- 2008 녹색에 내리는 단비 (녹색 병원)
무장에 놀이터 '애플레의 꿈' (여의도, 국회)
'어머니 나라' (헤이리)
경관창 '삶' (화천)
- 2009 '물 한 방울' (태백시)
겸재의 발견' (강서구 겸재기념관)
경관창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강원 화천)
소망트리 '바람 속에 벗이 있고' (송파구청)
'하늘을 담는 그릇' (서울 월드컵 공원)
'빛의 나라' (시흥시 관교)
- 2010 '희망의 프리즘' (부천, 이건그롭로비)
'추사 김정희 상' (제주 추사기념관)
'385개의 소통의 문' (인천 덕적도)
노무현 무덤 박석 '사람 사는 세상' (경북 봉하)
'기후위기사계' (덴마크 코펜하겐)
어린이 놀이터 (용인 레미안 동천아파트)
'퍼니큐브'
'트라이 앵글'
'에그 버그'
'와인딩 캐슬'
- 2011 '바람이 그리는 그림' (강원도 태백시 하이원)
'대지의 아들 노무현' 기념비 (경남 봉하)
'희망그리는 학교' 벽화조성사업 (서울디자인고등학교)
- 2012 '시의 깃발' (부여 신동엽 문학관)
'돌에게 말걸기' (전북 도청)
'광화문 농사로' (광화문 광장)
'이제는 농사다' (세종 문화회관)
'서울을 그리다' (서울 서울 시청)
- 2013 '세시봉과 함께하는 미술로 소통하기 (우리 마포 복지관)
'서울 에너지 나무' (서소문 서울 시청)
'백두대간' 세종시 정부청사 문화부 로비

그림 연재

- 1991 '모로 누운 돌부처' - 김지하 (동아일보)
- 1999 '박노해' (중앙일보)
- 2001 '심청' - 황석영 (한국일보)
- 2004 '신연경' - 유홍준(중앙일보)
- 10~11 '임옥상의 붓과 말' (한겨레)
- 2012 '양세기의 달빛' - 고은 (경향신문)

소 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립미술관, 성곡미술관, 한솔미술관, 광주비엔날레, 제주도립미술관, 도탈미술관, 리움미술관, 가나화랑, OGI미술관, 서울대현대미술관

저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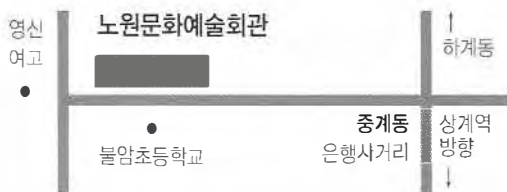
벽 없는 미술관 (2000)
누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 않으랴 (2000)

교육 및 단체활동

- 79~81 광주교육대학 교수
- 81~92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 93~94 민족 미술협의회 대표
- 08~09 국회 건축조경자문위원장
- 2009 서울시 시민녹색위원회 기획위원
- 2011 종로구청 공간디자인위원
- 2013 (재)종로문화재단 이사
(사)평창문화포럼 이사
(사)휴과 도시 부이사장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66-3 (우)110-849
• T. 02 3216 '876 / F. 02 396 6522 / H. 010 8558 2388
• homepage www.oksanglim.com twitter @oksanglim
• facebook oksanglim@gmail.com mail oksanglim@naver.com



교통안내

- 노원역 1번출구에서 1142번 버스
- 상계역 4번출구 국민은행 앞에서 1142, 1224번 버스
- 하계역 3번출구 을지병원에서 1141번 버스
- 중계역 2번출구에서 1135, 1140번 버스 이용

→ 노원문화예술회관 하차

자가용 : 지상 및 지하주차장 이용

노원문화예술회관

전 시 명 2013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임옥상 초대전
 주 최 노원구서비스공단 <http://gongdan.nowon.kr>
 주 관 노원문화예술회관 www.nowonart.kr
 후 원 노원구청 www.nowon.go.kr
 기 획 임옥상미술연구소
 발 행 처 노원문화예술회관 www.nowonart.kr
 발 행 일 2013년 11월 6일
 제작 마케팅 도서출판 신한기획마케팅 T.010 4221 081 www.art119.com

노원아트갤러리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364-3 (무수동길 181) T. 02-951-3355 www.nowonart.kr

© Copyright 2013 Lim, Ok Sang Printed in Korea

이 도록에 게재된 모든 자료는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